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7호 [루게 제25055호] 주제 104 (2015)년 10월 4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훌륭히 완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발전소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전체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내이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로 일떠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굳게 믿으시고 주체혁명의 성지 백두대지를 더욱 빛내이는데 이바지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청년동맹에 통째로 맡겨주시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뿔뿔 휘날리며 수명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열혈청춘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리면서 백두전주에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

지난 9월 완공을 앞둔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력사에 긍지높이 새겨놓고 길이 전해갈 귀중한 재부를 마련한 백두청춘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세상에 물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시고 그들모두를 영웅으로 내세워 주시였으며 발전소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붉은기전통이 창조된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피끓는



김정은동지 만세! 라는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결심하시면 우리는 무조건한다!>, <청년들이여!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 <청년들이여!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면저 다는 영웅적신화의 창조자가 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에 주체혁명의 계주봉을 상징하는 화불봉과 <영웅청년>이라는 글말이 새겨져있고 주변산들에는 <청년중시사상 만세!>, <청년강국>, <백두청춘>이라는 구호와 표어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봉해동지, 최태복동지, 김양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경해동지와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상원 량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휘관, 돌격대원들, 인

청춘의 기상과 용감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며 거연히 솟아오른 발전소는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청년들이 장장 70년의 승리의 역사를 아로새겨온 위대한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스런 로력적 선물이다.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준공은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기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고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백두산청년강국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역사적사건이다.

우리 당의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에 떠받들려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솟아오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이 3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빛나는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빛나는 초상기가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준공식장상공에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 만세!>,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구호와 글발들을 드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민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 청년동맹일군들, 발전소건설에 기여한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었다.

4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을 경축하는 군민청년 대합창공연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성황리에 진행

위대한 태양민족의 넋이 깃들어 있고 조선혁명의 깊고도 억센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승엄히 솟아 빛나는 백두전구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 터치는 승리의 선언이 힘있게 울려 퍼져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한데 이어 주체혁명의 계주봉을 상징하는 최불봉과 《영웅청년》이라는 글말이 새겨진 1호발전소 인제앞에서 군민청년대합창공연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가 3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백두산칼바람에 뚫을 달고 주체혁명의 불변의 침로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영웅청년들의 전투적 기상과 위훈을 힘있게 떨치며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를 모란듯이 일떠세우고 승리의 개가를 하늘땅이 들썩하게 터치게 된 열렬청춘들의 끝없는 긍지와 환희로 새 차가 뿜어내지고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연장소에 나오시었다.

발전소건설을 위한 격전의 나날에 꿈결에도 그리며 자나깨나 안고 싶었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뵈우는 순간 전체 출연자들은 쏟아지는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 정력적인 병도로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그들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출연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불멸의 위훈을 창조한 그들을 축하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



남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김양건동지, 광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와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상원 량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청년동맹일군들, 발전소건설에 기여한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이 대합창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설화와 대합창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로 시작되었다.

절세의 위인칭송의 승엄한 선율이 은은히 흐르는 속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완공하여 삼지연군

의 전기문제를 풀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관철하였다는 충정의 보고를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삼가 드리었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예지와 정력적인 병도로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시켜나가는 백두산대국의 존엄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끝없는 충정의 마음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주체의 대업을 사랑의 억센 힘으로

이끌어 인민의 제일락원, 밝은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강대한 조선의 기상, 높뛰는 조선의 심장, 눈부신 세기의 태양으로 받들어나갈 천만군민의 불타는 충정의 수령송가, 위대한 장군찬가가 장엄하고 격조높이 터져올라 백두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완공의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강성국가의 문명을 제일먼저 달게 하시려고 이 세상 주실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다 안겨주신 어버이장군님이 못 견디게 그리워 금수산 태양궁전의 하늘을 우러르며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목매여 부르는 출연자들의 노래는 관람자들을 뜨거운 격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그리움의 대하, 경모의 정이 더욱 뜨겁게 설레이는 속에 무대에는 대화시 《태양의 품》, 녀성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대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종목들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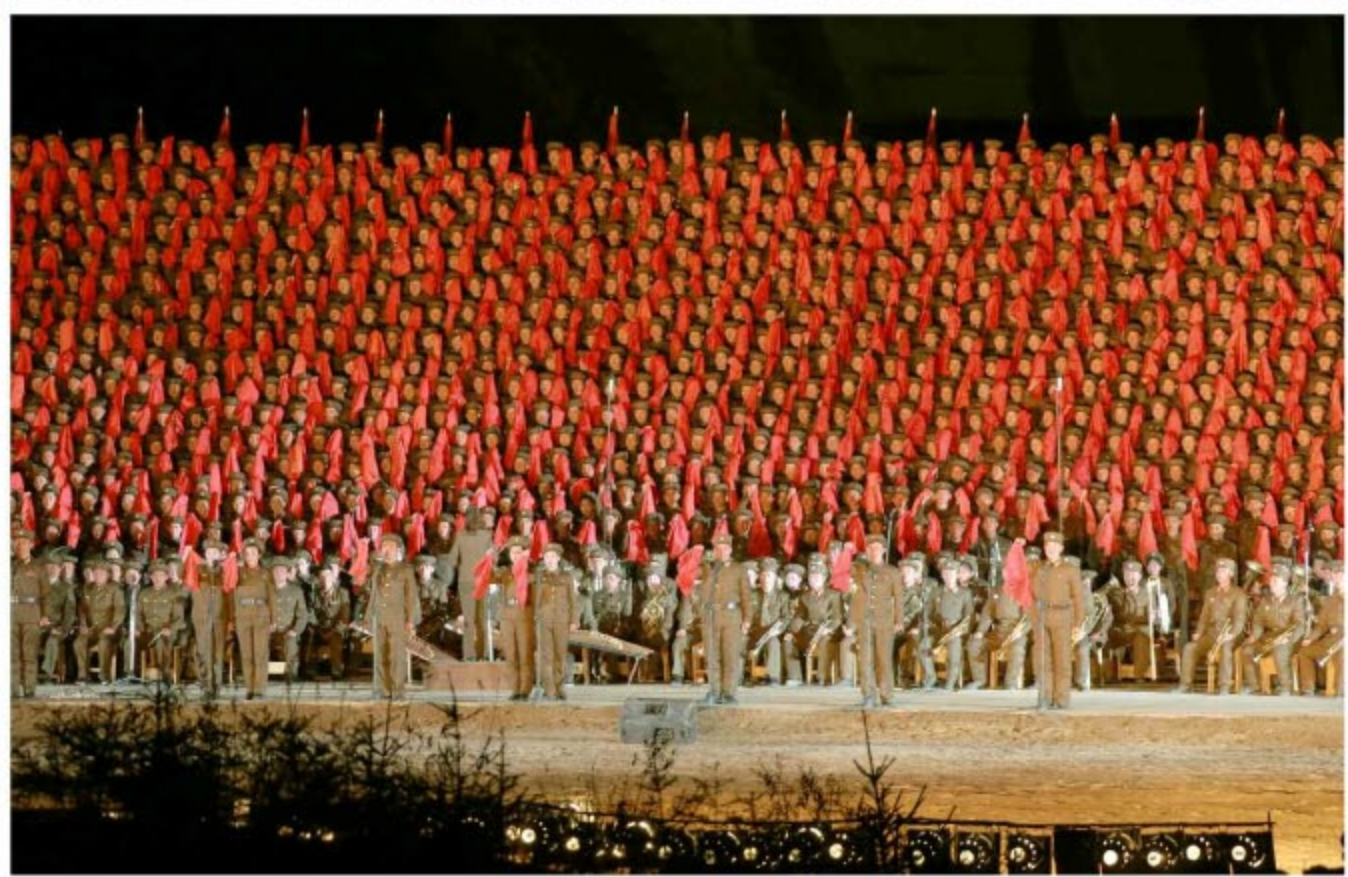
출연자들은 외국방문을 마친 길로 불편하진 몸이었지만 산세험한 발전소 건설장까지 찾아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과 정으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선화를 창조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품은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을 당정책관철의 맹장, 창조자의 거인,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는 영원한 삶의 품이라는것을 감동깊게 노래하였다.

녀성5중창 《금방석》에서 관람자들은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 당의 길동무로 불러주시며 금방석에 앉혀주시기 위해 온갖 실험을 다 기울이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위대한가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대합창 《조선청년행진곡》, 남성중창 《타오르라 우등불아》, 녀성중창과 방창 《우리의 래일이 말해줄거야》, 혼성2중창 《내가 지켜선 조국》, 금관중주와 대합창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 극이야기 《백두청춘대학》에서 출연자들은 백두대지에서 인생의 첫 출발을 메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치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 청춘대학졸업증을 받은 당의 참된 청년전위로 성장한 나날들을 감명깊게 펼쳐보이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적투쟁기공과 랑만, 생활기공을 따라배워 선군청년문화를 꽃피워온 백두청춘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무용과 기악합주, 북춤으로 흥겹고 경쾌하게 형상한 기악합주와 대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5 면 으 로 계 속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훌륭히 완공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발전소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전체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1 면에서 계속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증시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시며 우리 청년들이 당의 령도따라 백두산칼바람에 뜻을 달고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으로서의 위용을 더 높이 펼쳐가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던져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 돌격대원들이 향기로운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발전소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백두청춘들의 애국충정의 땀방울과 위훈을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가장

값높이 빛내어주시고 백두산청년강국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필승의 보증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을 끝없는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적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년대와 세기를 이어 빛내이며 조선청년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파시해갈 신념의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히 열화하고 같은 애국충정과 영웅적투쟁정신, 창조적지혜와 불같은 열정으로 발전소완공의 날을 안아온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레프를 끊으시었다.

준공식장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백두대지의 푸른 하늘가를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당중앙을 옹위하여 성세, 방패를 이룬 청년대군의 모습, 하늘에 닿은 조선청년들의 기상인양 웅장하게 솟아오른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연제앞에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언제나 주체혁명의 성지를 더욱 빛내이는 보람찬 전투에서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의 위력을 떨쳐가는 백두청춘들과 함께 계시였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로 자라나도

록 뜨거은 사랑과 믿음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던져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애국의 피더운 심장으로 만년을 과감히 뚫고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발전소건설을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관찰하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드리는 가장 큰 로력적선물을 마련한 건설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를 일떠세운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금방식에 얹혀 금지높이 내세워주시며 최상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의 광란을 물리치며 우리 당의 청년증시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한 발전소건설자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어 우리 청

년들의 애국충정의 피와 땀, 영웅적위훈의 결정체이며 증견자인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연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백두대지의 산발들에 울음이 메아리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70년 역사는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맹장들로 키운 역사임을 만천하에 파시한 백두청춘들이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이 펼치는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전구마다에서 더욱 용감하게, 대담하게, 질풍같이 전진해나감으로써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끝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을 경축하는 군민청년 대합창공연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성황리에 진행



3 면에서 계속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며 공연무대에 기라대명창 《단숨에》, 민족기악과 대합창 《군민아리랑》이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시신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글발을 심장깊이 쏘아 박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억척불변의 철리를 거창한 실력으로 보여주시며 백두의 성지에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온 청년들격대원들.

힘있고 박력있는 선물이 맞추어 군민이 마음도 하나, 목소리도 하나로 합쳐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들은 청년들격대원들과 인민군군인들의 불꽃의 투쟁모습, 우리 당 군민대단결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격동적으로 보여주었다.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의 대진군을 막아보려고 피를 물고 날

뛰는 원수들에게 철추를 내리고 이 땅위에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백두산대국을 기어 올리며 새고야말 김정은혁명강군과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의 필승불패의 위용을 떨치며 선동과 대합창 《수령이시여 명명만 내리시라》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은 이 세상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치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어도 변함없을 것이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한 대합창 《조선의 모습》으로 공연은 최절정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려웠던 혁명의 붉은기를 수령결사옹위의 기치, 영원한 신념의 표대로 삼고 우리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고갈 피끓는 청년들의 신념의 맹세를 담은 대합창시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가 백두대지의 산발마다 힘있게 메아리쳐갔다.

위대한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조선청년들의 전투적기개와 당의 두리에 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장엄한 화폭으로 펼쳐보인 공연은 대합창 《적기가》, 《불타는 소원》으로 끝났다.

우리 청년들을 진주보석처럼 아끼고 내세우며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여 키워주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익혀진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선언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새차게 울리었다.

군민청년대합창공연이 끝나자 영광의 10월을 맞으며 조선영웅청년들의 위대한 승리를 경축하는 축포가 백두대지의 하늘가에 환희롭게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건설자들과 함께 백전백승 청년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축복하며 장쾌하게 터져오르는 환희의 축포, 승리의 축포를 뜨거운 격정속에 부감하시였다.

젊음의 힘이 치솟는 영웅청년들의 기상인양 창공높이 솟구쳐올라 백두의 하늘을 천색만색으로 황홀하게 물들이는 축포들과 인제우에서 쏟아져내리는 불폭포를 바라보며 청년들격대원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만년시련을 이겨내며 발전소를 일떠세운 나날들이 가슴뜨겁게 안겨와 기쁨의 눈물속에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목청껏 환호성을 터치고 또 터쳤다.

백두대지에서 터져오른 경축의 축포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의 나날에 아로새긴 영웅청년들의 위훈을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기억할것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언제나 곧바로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며 10월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 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는 군민청년대합창공연을 진행한 백두청춘들이 앞으로도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이어붙고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며 당의 척후대, 의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백두전구의 전사들을 찾아 또다시 불멸의 자욱을 수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가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빛내어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정치보도반



